



4월, 너 장의 꽃잎

✦

4월을 준비하며 맞은 3월의 폭설은 오랜만에 합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폭설은 세상을 뒤덮으면서, 사람과 자동차의 발을 묶으면서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3월의 아름다운 설경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폭설은 남으로 서로 옮겨가면서 큰 상처를 남긴 채 몇었고, 우리는 지금 다 잊은 듯 4월 앞에 서 있습니다. 4월에도 눈이 내릴까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눈이 내린다면 아름다운 설경 정도로 그치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자동차도 동물들도 모두 발이 묶여 동동거리는데 유일하게 발이 묶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폭설뿐만 아니라 민심에도 끄덕 않는 사람들이지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

4월의 특집 아이콘으로 '평전'을 내보냅니다. 평전은 일차적으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었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평전의 주인공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거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노릇은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네 역사가 평전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출판 현실이 우리네 인물을 폄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들 곁에 있는 누구도 미래의 평전 속에 들어올 인물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람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

4월에 우리는 차윤정과 김영하 두 사람을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내보냅니다. 첫 공동선정입니다. 차윤정 씨는 자연인으로서의 <출판저널>에 아내 이야기를 기꺼이 써준 전승훈 씨와 결혼한 터이지만 직업적으로는 숲과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숲의 생활사》에서 내밀한 숲 이야기를 들여보시면 자연과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 김영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 만의 작품집 속에서 그는 속된 말로 그가 왜 이 나라 문학독자들의 '오빠' 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문학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깨닫게 하는 작가의 솜씨는 어느덧 고수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알고 보니 작가 김영하 씨가 돌아왔습니다.

✦

4월에는 땅 속에 움츠렸던 거의 모든 식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상춘객들이 식물들의 꽃망울과 새싹을 보기 위해 전국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생명을 지켰던 식물들의 안간힘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감탄사 몇 개 흘려보내느라, 기념 사진 몇 장 박느라 그 많은 시간을 길에 버리곤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람도 식물도 4월에는 피곤합니다. 한걸음 떨어져서 서로를 지켜보면 더 고귀할 수도 있는 것을. <출판저널>이 4월을 위해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강숙 박완서 김점선 김경일 전순옥 김기태 최석태 제씨들의 기사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기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2004년 4월 일

임동현·본지 주간